

SI 집적단지 300억 등 국회심사 과정 2000억 증액 목표

■광주시 국비확보 총력전

광주시는 31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 협의회를 내년도 예산 추가 확보의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광주시는 정부 예산안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삭감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개별 사업의 필요성 등 논리 개발 등 민주당 설득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국회의원에 예산 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당의 다분히 의도적인 광주 주요 현안 사업비 삭감 방침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호남지역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 삭감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지역 정치권의 대응도 주목된다.

◇광주시, 인공지능 예산 300억 증액 등 2000억원 추가 목표= 광주시는 정부 예산안보다 2000억원 이상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광주시 첨단 3지구에 조성 예정된 인공 지능집적단지 사업의 경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426억원이 반영됐으나, 민주당 협의를 거쳐 300억원을 추가해 총 726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광주시는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창업지원 등의 명목으로 1205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안 확정 단계에서 대폭 삭감됐다. 광주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관련 1단계 사업으로 4061억원, 10년간 모두 1조원 가량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시켜 인공지능 선도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올해 초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먼저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었으나 예산 확보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광주시는 미래먹거리 산업임에도 인프라 구축 관련 내년도 예산 반영액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천명한 점을 거론하면서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한다는 생각이다.

정부안에서 아예 누락된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개발사업비 39억원,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비 50억원, 국립광주국악원 건립비 70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관련 사업비 20억원 등 20여건의 사업도 국회 단계에서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주의 핵심 사업임에도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게 확보하거나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과제 해결은 물론 미래 신산업 주도권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9일 간부회의에서 "국비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사업 필요성 등 논리 준비

내일 정책협의회 민주당 공조

정부안 누락 20건 반영 계획

신임 조인철 부시장 역량 관심

정치권, 한국당 삭감 방침 반발

지 않다"며 총력 대응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해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수행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명의 부시장을 중심으로 각 실국은 수시로 국회를 찾아 국비 증액의 필요성과 지역의 절박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30일자로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부임할 조인철(영광·55)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특목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이 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성과를 가져올 지도 관심이다. 이 시장은 문화계 홀대 비판을 감수하고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통' 관료인 조 부국장을 차기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낙점했다.

◇한국당, 호남예산 삭감 방침에 지역 정치권 강력 반발=호남의 내년 예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삭감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신당 최경환 의원은 "한국당이 2020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을 지적하면서 광주·전남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5·18 진상규명 관련 사업, 목표에 들어설 해양경찰 서부정비장 신설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며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의원은 지난 24일 이와관련 "5·18 망언과 역사 왜곡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안면몰수한 작태"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규명 관련 사업과 광주 AI(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방침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5·18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31일에 본회의 통과가 확실하며,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초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추진의지가 명확한 상황임으로 한국당의 이 같은 삭감 이유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궤변이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대구 노보텔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공동협력과제와 신규 과제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민관협력위 10차 회의...광주-대구 달빛동맹 협력사업 속도

5개 분야 33개 과제 성과 점검

재향군인회 교류 신규과제 포함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동맹과 관련한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속도를 높인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대구 간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제10차 회의가 이날 오전 11시 대구 노보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과 함께 열린 9차 회의에 이어 마련됐다. 제10차 회의에

서는 기존 달빛동맹 공동협력과제 5개 분야 33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신규 발굴한 '재향군인회 영·호남 민간교류 활성화'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또 지난 1년 간 추진해온 공동협력과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대구시는 11월에 열리는 국제로봇산업전에 로봇산업분야 공동 달빛동맹관을 운영하고 양 시의 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광주시와 대구시의 식

품전에서 달빛동맹 특별관을 운영하고 각 시 대표단이 교차 참석하는 등 식품산업과 음식문화 교류를 통해 달빛동맹 유대감을 형성한다.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대구 근대문화 박물관과 김광석 거리 등을 탐방하며 동시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한편,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는 광주와 대구의 문화·경제·체육·관광·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5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정기회의를 9회에 걸쳐 개최하며 공동협력과제를 발

굴·심화하는 등 민·관 영역에서 달빛동맹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달빛동맹을 통해 광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확장 개통, 달빛 혁신창업 성장지원펀드 조성, 그린 신재생 에너지분야 공동 사업 발굴 협력, 양 지역 사회적경제 박람회 상호 참여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경제산업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문화예술, 청소년 등 행정 교류를 뛰어넘어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검찰개혁 법안 충돌 피했지만...여야 입장차 커 합의 불투명

본회의 부의 12월 3일로 연기

선거법과 동시 처리 가능성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29일에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하면서 여야가 일단 극한 충돌을 피했다. 이날 부의가 이뤄졌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국회 일정 전면 거부까지 검토하며 반발해온 제1야당이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재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 의장의 결단으로 '시한폭탄'은 잠시

꺼졌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오는 11월 27일이면 본회의 부의 시점이 도래하기, 문 의장이 제시한 12월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패키지 처리'가 가능해져 충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 달가량의 시간이 생길 만큼 여야는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 대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면 정국은 더욱 미궁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 부의 연기에 엇갈

린 표정을 보이면서 향후 전략을 골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패스트트랙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통한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 동시 처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더 합의하라며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다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상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들과 검찰개혁·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부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 12월 3일도 국회법에 맞지 않는 날짜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 모두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20대 국회에 와서 정치가 실종됐다. 무조건 폭압과 일방적인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가을음악회

영화가처럼...

할리우드 영화음악 연주·작곡가 **백진주와 친구들**

Violin 백진주

UCLA 음악학 박사
영화음악 연주 & 작곡가
주요작품 : 타이타닉, 캐러비언 해적 등 약 800여편
민주 평통 위원회 초청 연주자
미 대사관 - 인도, 러시아, 필리핀 초청 연주자
청와대 여성포럼 초청연주 - 노무현 대통령
백악관 대통령의 날 초청 연주 - 레이건 대통령

EN voice

광주 시립합창단으로 구성된 클래식 단체로 클래식 뮤지컬 크로스 오버 등 다양한 음악을 연주

국악인 송은영

광주광역시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이수자
국립민속국악원 준회원 역임
가야금병창 대륙제 대상 수상
일명들 국악제 최우수상 수상

소프라노 유경민

Italy Concorso Nazionale per Giovani Musicisti the Grand Prize
Korea & China 광주주 문화 교류 초청 콘서트
민주 평통 초청 통일 하나로 콘서트
파키스탄, 태국, 인도 등 문화교류 초청 콘서트

일시 | 2019년 11월 5일 오후 7시 장소 |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